

四象醫學의 四端七情論에 對한 考察

慶熙大學校大醫院漢醫學科內科學教室

宋一炳 · 李文宰

I. 緒 論

東醫壽世保元에 기재된 四端七情에 대한 글을 보면 첫째, 「醫源論」의 「心之愛惡所欲喜怒哀樂偏着者為病而…」에서 볼 수 있고, 둘째, 「四端論」의 「入趨慾有四不同 棄禮而放縱者名曰鄙入 棄義而偷逸者名曰懦入 棄智而飾私者名曰薄入 棄仁而極慾者名曰貪人」에서 볼 수 있고 셋째, 「四端論」의 「仁義禮智四臟之氣 括而充之則浩然之氣出於此也, 鄙薄貪懦一心之慾 明而辨之則浩然之理出於此也」라고 쓴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東醫壽世保元の 著者인 李濟馬가 性理學的인 바탕에서 四象醫學을 著述한 까닭이라 생각된다.

七情의 語源은 크게 나누어 보면 두가지 根源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 가장 最古의 문헌으로는 「禮記」의 禮運篇에서 나온 「喜怒哀懼愛惡欲」의 七情을 찾아볼 수 있고, 이와 비슷한 것을 佛家의 六欲七情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때의 七情은 「喜怒哀懼愛憎欲」을 말하고 있다. (釋氏要覽)

한편 性理學에서 말하는 四端七情은 「喜怒哀樂愛惡欲」과 孟子의 四端인 「仁義禮智」를 합하여 人性을 표현하는 哲學的 술어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둘째, 漢醫學에서 사용하는 「喜怒哀思悲恐驚」의 七情은 內經의 五臟에서 나온 五志(喜怒哀思恐)에 悲驚을 합하여 七情을 만든 것인데, 內經原文에는 七情이란 용어가 없고 後代에 나온 張馬合註에서 비로소 찾아 볼 수 있다. (本神篇註). 한편 金元代에 쓰여진 「劉完素大書」의 「悲病之厚」에 記錄된 五志七情의 七情을 보면 性理學에서 쓰고 있는 「喜怒哀樂愛惡欲」의 七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漢方의 七情은 金元代以後에서 부터 쓰여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四象醫學에서 나온 四端七情은 性理學에서 나온 四端七情과 같은 것으로 보고 본인은 앞으로 性理學에서 나온 四端七情論과 李濟馬가 「格致彙」에서 말한 四端七情論에 대하여 비교 考察하여 이 原理가 어떻게 四象醫學에 영향을 끼쳤나를 알아 보려고 한다.

II. 性理學에서 본 四端七情論

性理學이란 宋代의 儒學者들이 (朱熹, 程顥, 程頤 등) 四書三經에 나온 人性과 天命에 대한 것을 다시 해석하여 論한 儒敎哲學으로 性命理氣의 學問인 것이다.

朱子是 「性與情皆從心」이라 하고 「性即心之理情即心之用也」라 하여 性情을 心の 体用關係 또는 理氣關係로 說明하였고 「中庸」에서 나온 「喜怒哀樂愛惡欲」七情은 人情이 되고, 「孟子」에서 나온 四端은 「羞惡之心 惻隱之心 辭讓之心 是非之心」으로 人性이 된다하여 「四端是理之發, 七情是氣發之」이라 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에 건너온 性理學은 李滉(退溪)의 四端七情에 대한 理氣二元論과 奇大升, 李珣栗谷)가 함께 主張하는 理氣一元論으로 점차 發展하여 왔다. 다시 말하면 退溪는 처음에 「四端理之發 七情氣之發」로 主張을 하였다가 奇大升이 반박하기를 「四端도 七情 밖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요 氣를 떠난 理도 없는 것이니 理發 氣發을 대립시켜 論하는 것은 잘못이 아닌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退溪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즉 「性에는 착하기만 하고 악함이 없는 본연의 性과 善惡未定의 기질을 가진 氣質之 性의 두가지가 있고, 情에 있어서도 理에 관계하는 것과 氣에 關係하는 것을 구별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결국은 退溪는 四端도 物에 感하여 動함은 七情과 다름이 없으나 「四端理發而氣隨之 七情氣發而理乘之」한다고 하여 본래의 二元論의 주장을 다소 완화시켰다.

栗谷은 一元論의 주장으로 「心은 하나인데 道心과 人心으로 구별하는 것은 性命과 形氣의 구별이요, 情은 하나인데 四端이니 七情이니 하는 것은 理만 말한 것과 氣를 겸하여 말한 것이 구별하는 차이라고」하였다. 여하튼 이들 性理學者들은 공통적으로 理氣의 關係에서 四端과 七情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여온 것이다.

III. 李濟馬의 四端七情論

李濟馬의 哲學的 思想書인 「格致藁」에 수록된 四端七情에 對한 文章과 東醫壽世保元 속에 나타난 喜怒哀樂에 對한 文障을 材料로 모아 보았다.

첫째 : 材料

- 1) 喜怒哀樂情也 其未發則性也 (中庸註) (朱子)
- 2) 往必有哀來必有樂 臨必有怒 立必有喜 喜怒哀樂人性也 往來立臨天命也 以天命而授人性者 天命之性也 以人性而順天命者 率性之道也 喜怒哀樂未發 即致知慎獨也 致知慎獨 即戒慎恐懼也 致知慎獨不息而久則修道之教也 (「格致藁」卷之二 三十二)
- 3) 既有來往立臨之命則 亦自不來往不立臨之命也 既有喜怒哀樂已發之性 則亦自有喜怒哀樂未發之性也 不往來不立臨之命 豈非孤獨之命乎 獨之所性 孰如戒慎恐懼 漸次以中乎 是故喜怒哀樂者來往立臨之間 與人相接之性而有節有不節也 戒慎恐懼者不往來不立臨之時 自己獨得之性而有中不中也 自己獨得之性 盡於內 則與人相接之性 盡於外也 性之德也 合內外之道也 時措之宜也 (「格致藁」卷之二 三十二)
- 4) 知天然後 喜怒哀樂已發而節也 知人然後 喜怒哀樂未發而中也 知天知人 聖之所能也 抑其次者 雖賢也能之乎 是故君子必恒常戒慎 恐懼於閑居獨處之時 則往來立臨之間 自然寡過而閑居獨處之所

得 亦終至 於悠遠博原高明矣 高明則知人矣 其次致曲 曲能有誠 擇善而固執 誠之者人之道也 皆謂此也 (「格致藁」卷之二 三十二後)

- 5) 喜怒哀樂之未發謂之中 發而皆中節謂之和 喜怒哀樂未發而恒戒者 此非漸次於中者乎 喜怒哀樂已發而自反者 此非漸近於節者乎 (四端論) 「壽世保元」
- 6) 太陽人 哀性遠散而怒性促急 哀性遠散則 氣注肺而肺益盛 怒性促急則氣激肝而肝益削 大陽之肱局 所以成形於肺大肝小也 少陽人 怒性宏抱而哀情促急 怒性宏抱則氣注脾而脾益盛 哀情促急則氣激腎而腎益削 少陽之肱局 所以成形於脾大腎小也 (四端論)
- 7) 哀氣直升直升 怒氣橫升 喜氣放降 樂氣陷降 (上同)
- 8) 哀怒之氣上升 喜樂之氣下降 上升之氣過多則下焦傷 下降之氣過多則上焦傷 (上同)
- 9) 哀怒之氣 順動則發越而上騰 喜樂之氣 順動則緩安而下墜 哀怒之氣陽也 順動則順而上升 喜樂之氣陰也 順動則順而下降 (上同)
- 10) 哀怒之氣逆動則暴發而並於上也 喜樂之氣逆動則浪發而並於下也 上升之氣逆動而並於上則肝腎傷 下降之氣逆動而並於下則肺脾傷
- 11) 太陽人 哀心深着則傷表氣 怒心暴發則傷裡氣 故解你表證以戒哀遠怒兼言之也 曰然則少陽人怒性傷膀胱 氣哀情傷腎大腸氣 少陰人樂性傷目腎氣 喜情傷脾胃氣 太陰人喜性傷耳腦頰氣 樂情傷肺胃腕氣乎 曰然 (太陽人內觸小腸病論後)
- 12) 天下喜怒哀樂之暴動浪動者 都出於行身不誠而 知人不明也 (四端論)

둘째 : 考察

(材料 2)에서는 中庸首章의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教」를 해설한 것으로 喜怒哀樂을 人性으로 보고 있는 것이 重要な 사항이다.

(材料 1)에서 宋儒들은 「喜怒哀樂情也 其未發則性也」라고 하였으나 李濟馬는 「喜怒哀樂未發 即致知慎獨也」라 하였다. 다시 말하면 宋儒는 未發時는 性이 되고 性은 또 天理이기 때문에 中만 있고 不中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고 李濟馬는 「未發即致知慎獨也 致知慎獨即戒慎恐懼也」라 하여 致知慎獨이나 戒慎恐懼가 있고 없는 것에 따라 中不中이 된다고 본 것이다.

(材料 3)에서는 「이미 喜怒哀樂의 已發之性이 있으면 또한 喜怒哀樂의 未發之性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已發之性은 與人相接之性으로 有節有不節이 있고 未發之性은 自己獨得之性으로 有中不中이 있다」고 하여 이들은 서로 合하여 內外之道가 된다고 하였다.

(材料 4)에서는 「喜怒哀樂의 發而節하거나 未發而中하는 것은 聖人君子나 할 수 있고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다」고 말하고 君子는 慎獨의 경지로 恒戒하는 誠이 必要하다 하였고, (材料 5)에서는 「未發而恒戒와 已發而自反」을 君子의 生活指標라 하였다.

以上을 要略하면 喜怒哀樂은 人性으로 已發未發에 따라 情과 性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與人相接之性과 自己獨得之性의 각각의 有節有不節, 有中不中에 따라 性과 情의 分岐가 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李濟馬는 전통적인 已發未發의 경지에 머물지 않고, (材料 6), (材料 9), (材料 10), (材料 12)에서 性은 氣의 順動之氣에 의해서 생기고 情은 氣의 逆動之氣에서 생긴다고 보고 있다. 即動的인 氣의 兩面相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喜怒哀樂之氣의 順逆에 의해서 性情이 결정되고 이 性情은 人稟胎理의 形成에도 결정적인 要因이 된다고 보았다. (材料 6)

그러므로 儒學의 人性論은 倫理的 영역에 머물러 있는데 반하여 李濟馬의 人性論은 生理的 領域까지 침투한 것이다. (材料 7, 8, 9)에서 喜怒哀樂之氣는 升降하므로 上下焦의 虛實을 유발한다고 보아 病理를 설명하는 기본 개념이 되고 있는 것이다. (材料 11)에서는 喜怒哀樂의 性, 情이 人體의 表, 裡氣에 作用하여 俱體的으로 나타나는 四象人의 病理까지를 提示해 주고 있다. (材料 12)에서 喜怒哀樂의 모든 病的 유발 요인은 行身不誠과 知人不明으로부터 온다고 말하고 있다.

IV. 總 括

- 1) 性理學에서 나온 四端七情의 七情은 內經에서 나온 七情과 서로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內經의 七情은 五臟의 五志에서 나온 것이고 四端七情은 理氣關係의 性情이다.
- 2) 性理學의 四端七情은 理氣關係의 性과 情으로 설명하는데 四象醫學(李濟馬)의 喜怒哀樂은 情으로 보지 않고 人性으로 보고 있다. 喜怒哀樂은 七情中의 一部 개념으로 보지 않고 要略된 基本人性으로 생각하고 喜怒哀樂之氣의 順動과 逆動에 따라 性과 情이 나누어진다고 보고 있다. 即 性情은 動的인 氣의 兩面相인 것이다.
- 3) 喜怒哀樂의 性情이 人稟胎理의 形成에 결정적 要因이 된다고 보았는데 이는 人性論이 生理學的 영역까지 침투한 것으로 이는 性理學의 人性論은 倫理的 領域에 머물러 있지만 四象醫學의 人性論은 生理學에까지 확대 적용시킨 획기적인 發見인 것이다.
- 4) 四象醫學에서는 喜怒哀樂이 各各 上下로 升降하는 氣를 作用시킨다고 보아 哀怒之氣는 上升하여 下焦를 傷하게 하고 喜樂之氣는 下降하여 上焦를 傷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 5) 喜怒哀樂之氣는 升降한다고 보는 외에 喜怒哀樂의 性은 人體의 表氣를 傷하게 하고 喜怒哀樂의 情은 人體의 裡氣를 傷한다고 보았다.
- 6) 喜怒哀樂의 모든 病的 유발 요인은 行身不誠과 知人不明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V. 結 論

- 1) 內經의 七情과 四象醫學의 四端七情은 서로 다르다.
- 2) 性理學의 四端七情은 理氣關係의 性情이지만 四象醫學의 喜怒哀樂은 人性의 要略된 개념으로 보고 있다.
- 3) 四象醫學에서는 喜怒哀樂의 順動之氣와 逆動

之氣에 依해서 性情이 分岐된 다고 보았다.

4) 哀怒之氣는 上升해서 下焦를 傷하고 喜樂之氣는 下降하여 上焦를 傷한다고 보았고, 喜怒哀樂의 性은 人體의 表氣를 傷하고 情은 裡氣를 傷한다고 보아 各各 喜怒哀樂의 氣, 性, 情이 다르게 作用하는 것을 보여준다.

5) 儒學의 人性論은 倫理的領域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四象의 人性論은 人體生理에 까지 확대 適用되고 있어 획기적인 사실이라 할 수 있다.

〈参 考 文 献〉

- 1) 李濟馬：東醫壽世保元
- 2) 李乙浩：東武四象說의 經學的 基調 (黃帝醫學 제 2 권 제 4 호) 1977.
- 3) 李乙浩, 洪淳用：四象醫學原論, 1973.
- 4) 成樂熏：韓國의 思想大全集 (李滉篇)
- 5) 成樂熏：韓國의 思想大全集 (李珣篇)
- 6) 金學主：中庸 (四書三經), 孟子 (四書三經)
- 7) 禮記 (禮運篇)
- 8) 張馬合註：內經
- 9) 醫部金錄：精志門 (劉完素 六書)